

파코 라반의 作品에 나타난 未來主義 디자인 研究⁺

崔京姬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助教授

A Study on the Futurism Design in Paco Rabanne's Works

Choi, Kyung-Hee

Assistant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s on the futurism expressed in Paco Rabanne's works. Paco Rabanne, who has created experimental and prophetic avant-garde fashion by cutting edge techniques and revolutionary new materials, is known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shion designer of modern times.

First, Light,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 in Paco Rabanne's fashion design, shows some influence of medieval symbols of love and salvation.

Second, the artistic trends which influenced on Paco Rabanne's fashion include surrealism, op art and kinetic art. His use of new materials and avant-garde style represents the influence of surrealism. His experimental use of waving plastics and glittering metal during his early period is especially related with op art and kinetic art in the early 1960's which emphasize the artistic effect of light and movement.

Third, the characters of Paco Rabanne's works are the harmony of technology and the beauty oh machine by the geometrical figures like triangles, rectangles, and circles and represent and movement, and the innovational creative methods, voluptuous beauty.

Key words : Futurism(미래주의), Futurism Fashion(미래주의 패션),
Paco Rabanne(파코 라반), the geometrical molding(기하학적 조형),
kinetic art(키네틱 아트)

⁺ 본 연구는 2002년도 호남대학교 교내학술논문공모과제 선정연구과제 연구비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1. 서론

현대는 기존의 세계, 가치관, 상식, 행동 양식들이 해체되고 미래 사회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생활 방식과 규범, 제도 등을 창조해 나가는 가운데 생활 패러다임이 크게 변화되고 사회가 지향해 나가야 할 방향과 비전 등이 바뀌어나가는 등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Alvin Toffler)는 「미래의 충격」(Future Shock)에서 미래사회를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그것의 지대한 영향력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로 내다보았다.¹⁾

20세기 초 과학의 발전과 기계화의 추구는 과거의 인습을 부정하고 기계 문명을 예찬하며 새로운 기술 시대에 어울리는 속도감 넘치는 기계미를 조형성으로 표현하는 미래주의를 탄생시켰다. 미래주의는 복식 디자인에서도 나타나게 되어 과거 복식에서의 부동성에서 벗어나 활기를 띤 복식의 디자인을 강조하게 되었다.

미래주의는 기존의 고전적이고 정적인 주제의 표현 방법을 거부하고 미래세계에 초점을 맞춘 급진적인 운동으로서 정신적 사고는 물론 생활 양식,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표현방식에 큰 영향을 끼쳤다.

메가 트렌드(mega trend) 패션에서의 미래적 이미지란 단순히 하나의 컨셉이 아닌 Mega Trend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패션 그 자체가 미래를 예측하는 창조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미래주의 운동에 의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미래주의 패션이 발달되었고,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아 현재에는 테크놀로지 사이버 패션으로 확대, 발전되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에 미래주의 패션의 대표적 디자이너인 파코 라반에 관한 연구와 그 디자이너의 작품 속에 표현된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석해 봄으로써 그 시대 복식의 미적 경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디자이너가 작품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대상을 가능할 수 있다.

특히 21세기의 소재의 중요성과 개발이 재인

식되고 있는 요즈음 첨단산업과 다양한 신소재와 고도의 테크닉으로 구사된 실험적이고 예언력있는 작품으로서 현대 패션에 기여하고 있는 파코 라반의 디자인 발상은 미래주의의 탐구에 이용되어온 테크놀로지를 패션계에 도입한 매우 독창적인 것으로서 높이 평가된다. 이에 시대를 앞선 진보적이고 미래지향적 이미지로서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현대 패션의 미적 영역의 확대를 가져온 파코 라반의 미래주의 디자인의 심도있는 연구는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은 미래 패션에의 방향 모색과 미래적 이미지의 독창적인 조형성을 가진 복식 디자인의 개발에 기초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미래주의 패션이 현대 패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연구하기 위해 소재 사용이나 의복 구성 등에 자유분방함과 초월함을 동시에 보이면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래주의 패션의 독특한 세계를 보여주는 미래주의 패션을 대표하는 디자이너인 파코 라반(Paco Rabanne)을 선정하여 그의 패션 경향과 그의 작품에 표현된 미래주의 패션의 특성을 분석했다.

파코 라반에 대한 연구로는 최정자²⁾ 최영옥³⁾ 이봉덕⁴⁾이 있으나 파코라반의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본 디자인 요소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미래주의 패션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는 ‘미래주의적 예술양식의 관점에서 본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김정희, 1992)⁵⁾,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연구’(이상진, 1997)⁶⁾ 등과 같이 패션 전반적인 미래주의적 경향이나 ‘현대 패션 디자인의 금속 소재 연구’(이영재, 2002)⁷⁾이 주를 이루고 있어 패션에서의 실제 적용된 미래적 이미지나 디자이너에 따른 미래적 이미지의 복식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 논문 및 국내·외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이론적 연구를 수행했으며 파코 라반의 작품집과 패션잡지 및 인터넷 자료 등을 근거로 파코 라반의 작품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20세기 미래주의의 발생과 함께 중

요한 패션요소로 자리잡은 미래주의 패션을 정립해보고 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활약해온 파코 라반의 작품을 분석하여 미래주의적 디자인의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미래 복식의 발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 복식의 창작영역의 확대를 모색하며 궁극적으로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의상을 창조하는 데에 목적과 의의가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미래주의의 개념

미래주의(Futurism)는 1910년대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미술사조인 미래파를 의미한다⁸⁾

20세기초 이탈리아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과학 문명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면서 정신적 사고는 물론 생활양식까지 바뀌었고 나아가 참체된 이탈리아 미술의 부흥을 이루려는 파격적인 미술운동인 미래주의가 일어났다. 시인 필리포 마리네티(Fillipo Tommoso Marinetti, 1876~1944)가 1909년 2월 20일 '피가로(Le Figaro)'지에 '미래주의 선언'을 발표한 것이 그 효시가 되었다.

기존의 낡은 예술을 모두 부정하고 기계세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다이나믹한 미를 창조할 것을 주장한 마리네티의 선언문은 에너지, 대담함, 운동과 활동을 추구하는 미래주의의 열정을 언급하고 도시적이고 기계화된 미래주의의 환경과 문화를 동경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이것은 기존의 고전적이고 정적인 주체와 표현 방법을 거부하고 미래 세계에 초점을 맞춘 급진적인 운동으로서 정신적 사고는 물론 생활양식,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표현 방식에 큰 영향을 끼쳐 왔다.

이를 계기로 이듬해 2월 카를로 카라(Carlo Carra), 움베르토 보치오니(Umberto Boccioni), 지노 세베리니(Gino Severini), 루이지 룬솔로(Luigi Russolo), 자코모 발라(Giacomo Balla)의 다섯 명의 화가가 '미래주의 화가 선언'을 선

언함으로써 미래주의는 시, 소설과 연극, 회화와 조각, 음악, 사진, 영화, 인쇄, 건축 등을 포괄하는 미술운동으로 전개되었다.⁹⁾

미래주의 운동은 과거의 예술과는 단절된 문화적 혁명을 통해 살아있는 철학이나 예술을 지향하였으며 사회의 일정한 틀과 전통성을 거부하고 미래에 대한 찬양을 추구하였고¹⁰⁾정적인 대상을 제거하고 동적인 모습, 즉 소음, 속도, 운동 등을 통해 다이나믹한 대상들을 도입시켰다.

기하학적 형태와 기계를 상징하는 색채, 질감, 운동으로 표현된 기계 미학을 표현하는 기계미는 모더니즘이 가진 과학과 기술에 의한 진리의 발전과 진보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표현되었고 이러한 기계미는 기계 움직임의 역동적 표현, 기능미의 표현과도 관계가 있었다.

이와 같은 미래주의의 표현 목적은 기계의 다이나미즘(Dynamism)과 속도감의 미를 표현하는 것으로 미래주의는 그 이후 기하학적이고 다면체적인 역동성의 원리로 유럽 전체에 퍼져 러시아 구성주의(Russian Constructivism), 비디오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등의 키네틱 아트나 옴 아트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¹¹⁾

2. 미래주의 패션의 시대적 변천

1) 미래주의 패션의 태동기(1910~1930년)

복식의 미래주의적 형태는 20세기 초의 미래주의 발생과 함께 새롭게 탐구되기 시작하였다.

그 당시의 앞서가는 감각의 새로운 미술이 젊은 층 사이에 크게 성행하여 복식에 반영되고 전통적인 의상 습관에서 탈피한 기발한 감각과 전위적 경향이 크게 발전하여 그 면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래주의적 경향은 복식에서도 과학적인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움직이는 예술'이라는 예술 의상의 형태로서 다양한 디테일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다.

미래주의에 입각하여 우주에 새로운 형태를 부여하고자 하였던 최초의 예술가인 지아코모 발라(Giacomo Balla)는 1914년 5월 20일에 최

초의 미래주의 패션 선언서인 “미래주의 남성복 선언문”을 발표하였다.¹²⁾

그들은 비대칭, 추상적인 이미지의 역동성을 보여주며 인광을 발하는 광택 소재를 의상에 최초로 도입하였다. 발라를 비롯한 미래주의자들은 의복 커뮤니케이션과 논리에 무질서를 가져오는 것에 많은 흥미를 가졌는데 이는 의복에의 비대칭, 부조화 색상과 역동적인 형태의 병치(juxtaposition)적 사용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것들은 기하학적이고 무지개 빛 모티프를 가진 직물의 사용, 의복의 단일성과 단일 개념을 파괴하기 위해 일부분을 제거하거나 사선 커팅을 사용한 것에 의해 한층 강조되었다.

발라¹³⁾는 단순하고 여유감이 있는 미래주의 의상을 제작했는데 이것은 밝은 색채와 체크 패턴을 가진 혹은 흰 무늬가 있는 검정색이었고 무지개 빛을 강조하기 위해 타이를 첨가했다. 그는 회화에서 개발된 역동적 미래주의 요소인 빠른 선들 혹은 추상적 속도라는 모티프를 가진 천들을 디자인하기도 하였다.



<그림 1> Fortunato Depero, waistcoat, 1923, 「Art Deco Fashion」

데페로(Fortunato Depero)¹⁴⁾는 극장의 배우를 위한 의상과 ‘Plastic dances’라는 제목의 무용을 위한 꼭두각시 무용수들의 의상으로 조형적, 기계적인 의상들을 제안했다. 그가 만든 다양한 색상의 천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조끼<그림 1>는 유명하다. 또한 20년대 말 미국 록시

(Roxy) 극장 무용수들의 의상으로 숫자, 역동적 기호, 혹은 조형적 요소들이 첨가된 새로운 니트로 된 것을 제안하였다. 그의 무용의상 중에는 커팅된 레이아웃이나 선들, 인공적이고 강한 색채들로 인해 극도로 합성적인 것도 있었다. 또한 그는 1942년 선언문을 통해 삶의 다양한 목적과 필요에 맞고 특별한 상황에서 모든 동시적 사용에 적합하도록 변형이 가능하고 뒤집어 착용이 가능한 의상을 만들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 시기의 미래주의자들은 의상 외에도 다양한 재료와 색상을 사용한 액세서리, 직물 등을 디자인했고 가벼운 금속으로 만들어진 번쩍이고 내구성이 강한 벅타이를 상상하여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벅타이를 만드는 선언문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미래주의자들은 리듬과 감각을 표출한 캠퍼스의 그림처럼 복식에서도 다이나믹함을 표현한 직물 패턴을 디자인하였다. 이러한 복식의 직물 디자인은 기하학적이고 동적인 모티프와 더불어 역동적인 색채, 기하학적 패턴을 이용하였고 모티프의 연속적인 반복이 나타내는 속도감과 울동감으로 다이나믹한 직물 문양을 이루고 있다.¹⁵⁾

이러한 기하학적 구성은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합리적인 조형으로 인식되며 현대를 상징하는 미의 표현¹⁶⁾으로 의상에 다채롭게 응용되어 나타난다.

위와 같은 미래주의 패션과 더불어 복식에 있어서 역동적 색채에 대한 심층적인 시도를 한 디자이너는 20세기 초 러시아 직물의 발전과 더불어 혁신적 색채를 사용한 소니아 들로네(Sonia Delaunay)를 들 수 있다. 그녀는 ‘색채의 동시성’을 의상 디자인과 접목시켜 현대 문명의 속도감과 기계적인 구조를 표현한 새로운 복식미를 제시하였으며 강한 색채의 반복적인 대비는 옹아트의 성립에 결정적인 매개체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녀는 전통적인 개념에서 탈피한 기하학적 표현성을 구사함으로써 색채의 역동성을 달성하였다.¹⁷⁾

2) 미래주의 패션의 발전기(1960년대)

1960년대의 예술 양식은 과학 기술을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추상표현주의 이후로 나타난 미래주의 회화의 발전적 형태라 할 수 있는 옵 아트(opt art)¹⁸⁾와 키네틱 아트(kinetic art)¹⁹⁾의 영향으로 옵 아트 패션과 키네틱 패션이 등장하였다.

기계의 역동성을 현대적인 아름다움으로 찬양한 미래파 이후 미술사조상 ‘움직임’의 요소는 그림이나 조각의 한 요소로서 흔히 거론되어 왔으나 ‘움직임 자체’가 작품의 본질로서 설정된 것은 195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한 키네틱 아트에 의한 것이다.²⁰⁾ 1960년대 중반 이래 단순히 ‘움직이는 미술’에서 ‘빛과 예술의 운동’으로 발전하였고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진전된 테크놀로지 방법을 차용하였다.

젊은 세대의 혁명기였던 1960년대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주에 대한 관심의 고조, 달 착륙 등으로 우주복 스타일과 금사, 은사 등의 금속사로 만든 스타킹의 폭발적 수요를 몰고 왔으며 우주에서 연상되는 은색은 1960년대의 색이 되었다.²¹⁾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eges)와 피에르 가르덴(Piere Cardin), 루디 건릭(Rudi Gernic), 파코 라반(Paco Rabanne)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한 우주 룩과 코스모스 룩 등은 미래적 이미지를 보여주었다.

이들은 비밀상적 재질과 시스루(see-through)의 소재 등을 통해 우주를 표현되거나 플라스틱 소재로 테크놀로지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실험되었고, 금속 체인, 안전핀, 거울 등을 이용한 미래지향적 디자인으로 나타났다.²²⁾

1960년대의 미래를 상징하는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의 스페이스 패션은 직선적이고 기하학적인 선이나 점의 배치, 뚜렷하고 확실한 재단과 봉제 방법으로 경쾌한 라인과 직선적인 실루엣을 구축하였다.

또한 패딩과 퀴팅방법을 이용하여 소재의 부

피감을 표현한 우주복의 스타일과 소재의 다양성의 일환으로 표현된 몸에 밀착되는 바디 슈트 스타일은 우주의 미래세계에 대한 꿈을 적용한 것이다.²³⁾

3) 미래주의 패션의 성숙기(1990년대 이후)

컴퓨터 산업의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놀라운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공해에 따른 환경문제는 사회 전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관련된 멀티미디어와 첨단기술에 대한 매력과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풍 미래주의 스타일은 라텍스, 왁스 코팅 등의 하이테크 가공 소재를 사용하여 더욱 미래적이고 테크니컬한 이미지와 아방가르드한 형태로 패션에 시도되었다.²⁴⁾

1990년대 이후의 미래주의 패션에서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추구에 의한 광택, 메탈릭의 미래 이미지의 소재와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가 유행되었고 금속 실을 섞어 짜거나 마지막 후처리에서 코팅처리를 한 것 등의 광택, 메탈릭 소재들은 기계, 기술문명 등을 상징하는 차가운 스틸 감각의 기계미가 표현되었다.

특히 1990년 중반 이후의 골드와 실버 메탈릭은 기계미학과 테크놀로지를 대변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패션 경향은 첨단 매체의 영향으로 나타난 테크노 사이버 패션의 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스페이스 룩과 키네틱, 사이버 패션으로부터 발전된 하이테크 이미지는 메탈릭, 스틸 코팅, 왁스 코팅 등 사용된 소재 표면에서 분출되는 역동적이고 공격적인 운동감과 함께 미래의 이미지도 동시에 발산하고 있다. 특히 광택 재질은 몸의 움직임과 빛의 흐름이 미래지향적인 다이내믹한 힘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하이테크 소재의 미래주의적 이미지로 투명하게 비치는 소재에서 발휘하는 무한한 미래세계에 대한 동경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우주적 이미지가 모던한 감동의 통합으로 나타났다.²⁵⁾

III. 파코 라반(Paco Rabanne)의 작품 세계

1. 파코 라반의 작품 세계

파코라반은 1934년 스페인 생 페드로(San Pedro)의 파사제(Paajes)에서 태어났다. 파코라반의 어머니는 발레시아가 밑에서 오랫동안 수석 재봉사로 근무하였고 직업 군인이었던 그의 아버지는 1937년 프랑코파에게 체포되어 총살당했다.

파코 라반은 그래픽 디자인에 특별한 관심과 재능을 보여 프랑스의 유명한 예술학교인 에콜 데 보자르(Ecole des Beaux Arts)에 입학하여 건축학을 전공했다.

손재주가 뛰어난 파코 라반은 학비를 벌고자 발렌시아가(Balenciaga), 지방시(Givenchy), 자끄 그리프(Jacques Griffe),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ant), 디올(Christian Dior) 등과 같은 유명한 디자이너들을 상대로 단추, 보석, 금속 벨트, 가방 등의 액세서리를 직접 제작 또는 스케치해서 팔면서 패션 디자이너로 한 걸음씩 발돋움해 나갔다. 그 후 파코 라반은 오프꾸뛰르 디자이너로 크리스찬 디올의 샵에서 8년간 실무를 익힌 후 1964년 드디어 자신의 샵을 열고 독립했다.²⁶⁾

건축가로서 훈련받은 파코 라반은 팝아트에 대한 강한 흥미를 가졌고 플라스틱과 금속을 다른 소재들과 결합하여 사용하였다. 그는 플라스틱과 금속조각을 철사로 연결하여 의상을 만들었으며 금속 혹은 데이글로(dayglo:형광 안료, 고유상표 이름)색으로 유명했다.

파코 라반은 ‘꾸뛰르의 줄 베른(프랑스의 소설가 - 미래의 세계와 상상의 발명품을 소재로 삼았음)’이라는 별명을 가졌고²⁷⁾ 한때 코코 샤넬은 파코 라반을 디자이너로 간주하지 않고 그를 금속공이라고 불렀다.²⁸⁾ ‘이단자’, ‘새로운 현상의 창조자’라는 별명이 나타내는 것처럼 그는 전통에 상관하지 않고 새로운 소재 사용, 기존 소재의 혁신적 사용, 비전통적인 의복 구성,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추구,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한 디자이너로서 명성을 누려왔다.

파코 라반의 작품은 원래의 사용 목적에서 변형된 재료와 기술의 응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는 새로운 소재의 사용 외에도 기존 재료의 혁신적 사용이라는 실험을 단행하여 패션의 제반현상을 심층 분석하고 의상에 대한 일반적 관념을 뒤엎는 혁명적인 자세를 계속 유지했다.

1966년에는 오프꾸뛰르를 설립하였고 얇은 원반 모양의 빛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디스크 드레스를 발표하였으며 1967년 봄에는 페이퍼 드레스, 알루미늄의 튜브 드레스를 발표하여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자세를 보였다.

그는 1966년에 철제 침을 울동성있는 철사 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이브닝 드레스를 발표하여 그 당시의 충격적인 소재의 의상을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1960년대의 건축용 재료로 등장한 스텐레이스 스틸, 코팅 강철, 알루미늄판, 유리형판, 플라스틱 등을 조형적 구성물로 활용하여 미래세계와 공상 과학 영화에서 영향을 받은 미래의 이미지를 보여주었다.²⁹⁾

1976년에는 오프꾸뛰르 조합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하고 1977년 S/S 컬렉션에서는 즐겨 사용하던 금속, 플라스틱 등의 이질적인 소재들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직물만을 사용한 컬러풀한 드레스로 황금 바늘상을 수상받기도 하였다.

그는 1990년 S/S컬렉션에서 제 28회째 황금곰무상(De d'or : 데도르상)의 수상자로 결정되었다. 실험정신으로 일관된 그의 작품은 다양한 신소재의 적절한 조화와 간결한 선의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져 있다.

2. 파코라반의 미래주의 패션 분석

1) 디자인

(1) 기하학적 형태(geometric foam)

기하학적 형태는 질서를 갖고 있으며 명쾌한 형태 및 기능성을 포함한 합리적 구조는 산업화되고 기계화된 현대를 이해하는 형태로서 이상

적인 정신의 표현인 동시에 우주의 질서를 반영한다는 현대 미학적 의미를 내포한다.³⁰⁾

파코 라반은 작업 초기부터 삼각, 사각, 다각형, 원형 등의 기하학적 형을 디자인의 기본으로 삼아 구와 정육면체 등의 다면체와 원통형, 원뿔형 등의 다각뿔을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타 패션에 비해 강하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으며 전체의 실루엣이 기하학적으로 단순하게 나타나거나 작은 기하학적 단위들이 모여 큰 기하학적 형태를 만들어 복잡한 실루엣을 이루었다. <그림 2>는 파코 라반이 1967년에 발표한 알루미늄 금속으로 만든 드레스로서 작은 기하학적 단위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는 차갑고 기계적이며 중성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기하학적 구성을 준다.



<그림 2> 알루미늄으로 만든 기하학 형태 드레스, 1967, 「Fashion」

그의 작품은 주로 장방형, 원형의 플라스틱, 메탈, 가죽을 규칙적으로 연결시킨 드레스로서 이집트 미술의 특징인 기하학적 감각을 느낄 수 있으며 금속 체인을 이용하여 중세 기사복인 쇠사슬로 된 갑옷을 연상시킨다.

그는 이러한 기하학적인 조형, 선, 점의 배치를 이용해서 옵 아트, 키네틱 아트적인 패턴과 운동감을 주는 작품을 많이 선보였다.

1960년대에 발달한 미래주의 패션 중 대표적인 패션인 옵 아트의 기하학적 패턴<그림 3>

<그림 4>은 파코 라반의 문양 디자인에 자주 등장하여 시각적인 모호성과 율동성을 부여한다.

또한 <그림 5>는 금속 라메를 복식에 이용하여 빛이 반사되는 각도 변화와 몸의 움직임에 따라ダイナ믹하고 율동적인 느낌을 주어 강한 율동감과 집중력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무아레 현상에서 느껴지는 시각 효과와 유사한 착시 현상을 연출하여 금속이 갖는 발광 효과와 빛의 현상을 동시에 전개시킴으로써 또 다른 느낌의 옵 아트의 시각 현상을 제시해준다.

(2) 꼴라주(collage)

꼴라주는 프랑스어로 ‘풀로 붙이다. 물건을 퍼서 붙이다’라는 의미로 패션에서는 의복에 표정을 주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의 것을 붙인 디자인을 의미한다.³¹⁾ 재료축면에 일체의 변혁을 주는 조각의 복합재료주의 이론은 미래주의 복식에도 영향을 주었고 파코 라반은 직물이라는 한정된 소재에서 탈피하여 새롭고 다양한 소재의 도입하였다.

그는 오브제를 이용한 꼴라주 기법을 활발하게 사용하였는데 이는 변화하는 현대적 재료의 이용과 기존 가치관에 대한 부정이라는 의미에서 이해되고 발전되었다.³²⁾

또한 그는 인체를 둘러싸는 의상이 평면적인 직물이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의복 표면에 금속이나 유리봉과 알루미늄과 같은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소재를 꼴라주 기법을 통해 의상 위에 입체적으로 결합시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림 6>은 2001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라이크라 신소재 위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사각형의 장식을 앞 가슴부위와 허리에 장식하여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 7>은 2003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원단과 전혀 다른 질감의 금속 체인을 꼴라주 기법에 의해 길게 늘어뜨려 운동감을 부여한 키네틱 패션이다.



<그림3> 플라스틱 소재의
옵아트 패턴 드레스, 2004
S/S, 「www.firstview.com」



<그림4> 플라스틱 소재의
옵아트 패턴 드레스, 2001
F/W,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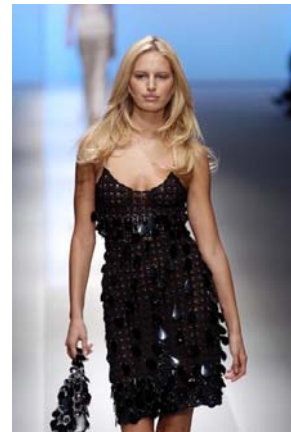
<그림5> 금속 라메
드레스, 1997 F/W,
「www.firstview.com」



<그림6> 투박한 금속의 플라주
기법을 살린 미래적인 스타일, 2001
S/S, 「www.firstview.com」



<그림7> 가늘고 긴 금속장식의
플라주 기법 드레스, 2003
S/S, 「www.firstview.com」



<그림8> 규칙적인 플라주로
장식한 코바늘뜨기 니트 드레스,
2005 S/S, 「www.firstview.com」

<그림 8>은 2005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코바늘뜨기된 니트 위에 광택있는 플라스틱 장식물을 규칙적으로 플라주하여 입체적인 느낌을 주었다.

(3) 키네틱 아트적 요소(factor of Kinetic Art)

키네틱 아트는 미래주의나 바우하우스(Bauhaus)의 실험정신과 러시아의 구조주의라고 하는 미

술사조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시각적 효과의 본질적인 부분으로서 움직임은 작품과 결합하는 형태 자체보다는 형태의 움직임에 의한 효과를 표현하는 것이다.³³⁾

이처럼 키네틱 패션은 빛과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키네틱 아트로부터 영향을 받은 패션 이미지를 말한다. '움직임'은 꾸준히 추구되어온 조형요소로서 의상에 있어서도 강한 시각적인 요소를 끌게 된다.

파코 라반은 직물을 소재로 한 의상이 몸에 맞게 재단되어져야 한다는 개념에서 탈피³⁴⁾하여 기존의 관념을 무시하고 직물이 아닌 다른 소재를 선택하여 인체에 입혀져 표현되는 움직임을 중시하는 의상을 발표하였다.

1966년에 발표된 파코 라반의 철제 칩을 유동성있게 철사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이브닝 드레스는 키네틱 아트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는 정방향의 철제가 빛의 반사에 의해 광택을 낼 뿐 아니라 움직임으로 인한 의상의 형태 변화가 기계적인 메카니즘을 전달해준 것이다.

이는 그 당시의 건축용 재료로 등장한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 강철, 알루미늄 판, 큰 유리형판, 플라스틱 등이 조형적 구조물에 이용되어 빛과 움직임의 키네틱 아트로 발전되었음을 반영하였다.³⁵⁾

파코라반은 1993년에 발표된 플라스틱 튜브로 만든 Fountain dress<그림 9>에서 여러 개의 긴 플라스틱 파이프를 거꾸로 매달아 타원형의 동선을 그리는 트리밍을 부착하였는데 파이프의 끝부분에 달린 인조보석의 빛은 흡사 전기모터장치에 의한 라이트 아트를 보는 것과 같은 적극적인 움직임을 적용한 것이었다.³⁶⁾

<그림 10>은 2005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얇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다양한 크기의 원모양을 와이어로 연결하여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는 입체적인 키네틱 패션의 드레스이다.<그림 11>은 2001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아래로 갈수록 점점 커지는 원형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기하학적 패턴에서 오는 간결하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한 키네틱 패션이다.

<그림 12>는 2001년 F/W에 발표된 작품으로 의상 부분적으로 장식한 꼴라주 기법에 의해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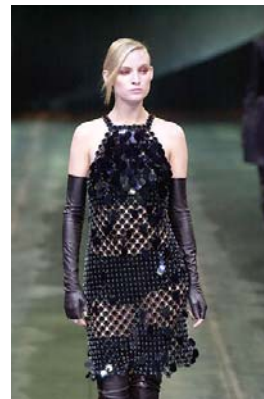
<그림 9> 플라스틱 튜브로 만든 Fountain dress, 1993, 「Paco Rabanne」



<그림 10> 얇은 플라스틱 재질의 원모양으로 장식한 키네틱 패션, 2005 S/S, 「www.firstview.com」



<그림 11> 변화있는 기하학적 패턴의 키네틱 패션, 2001 S/S, 「www.firstview.com」



<그림 12> 부분적인 꼴라주로 장식한 키네틱 패션, 2001 F/W, 「www.firstview.com」

위와 같이 파코 라반은 기계미학으로 꾸준히 추구되어온 '움직임'을 의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고 투명한 재료나 빛의 변화를 나타내는 금속 재료와 형광을 이용한 재료로 실제의 운동감과 빛의 반사를 이용한 역동성을 속도감있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다.³⁷⁾

2) 색채

첨단과학과 관련된 미래주의 디자인의 요소에 있어서 빛은 의상에서 다양한 영감을 제시하며 색채 또한 상징적 의미로서의 직접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 미래주의 패션을 대표하는 하이테크하고 메탈릭 색채는 소재의 표면감과 재질감에 따라 빛의 강도를 달리하며 광택의 정도를 표현하게 된다. 금, 은색과 같은 메탈릭 색채<그림 13>는 기술 발달에 의해 생산된 새로운 소재에서 볼 수 있는 색으로서 기술 발달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색상이다. 또한 그것은 밝은 빛과 반사하는 성질로 인해 주위로부터 두드러져 보이므로 주목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느낌과 삼차원적 느낌을 지닌다.³⁸⁾

파코 라반의 디자인 중 메탈릭 색채에 이어비중이 큰 색상은 흰색인데 <그림 14>는 무엇보다도 빛의 이미지를 상징하며 그 빛은 비물질적인 것으로 정신성, 경의와 동경의 어떤 희망적인 세계나 우주 세계를 상징한다.

파코 라반의 작품에서 나타난 색상은 주로 은색, 금색의 메탈릭 색채와 흰색을 중심으로 무채색 위주의 색상 외에도 미래주의적이고 인공적인 형광 색상, 네온 색을 띠는 원색을 흰색과 검은색에 혼합하여 표현되었다. <그림 15>

3) 소재

파코 라반은 피에르 가르덴이나 앙드레 꾸레쥬와 함께 미래주의 의상의 창시자이자 건축가 출신답게 직물 이외의 소재에 심취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등 실험성이 강한 요소나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메탈릭 소재 등을 이용한 의상을 발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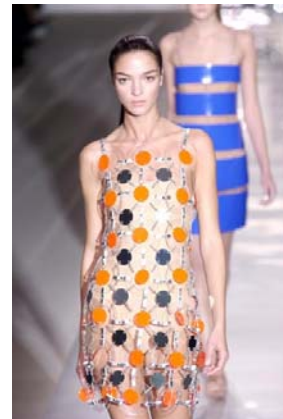
<그림 16>은 그가 1969년에 디자인한 금속 조각을 이용한 드레스로서 단순한 실루엣과 함께 진보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경쾌하게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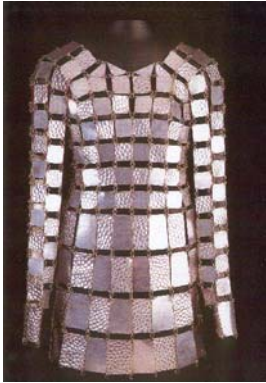
<그림 13> 메탈릭 색채의 하이테크한 스타일, 2000 F/W, 「www.firstview.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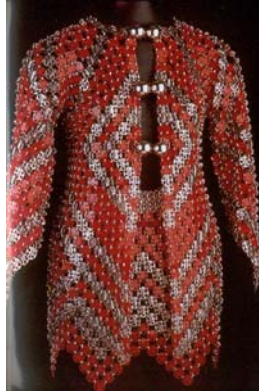
<그림 14> 우주를 상징하는 흰색과 기하학적 형태의 입체적인 드레스, 2001 F/W, 「www.firstview.com」



<그림 15> 스포티하고 미래적인 원색을 살린 드레스, 2004 S/S, 「www.firstview.com」



<그림 16> 알루미늄 조각의 드레스, 1969, 「Paco Rabanne」



<그림 17> 금속과 Rhodoid로 만든 드레스, 1969, 「Paco Rabanne」



<그림 18> Rhodoid earrings, 1965, 「Paco Rabanne」



<그림 19> 종이 드레스, 1967, 「Paco Rabanne」



<그림 20> 금속 장식의 가죽 모터 사이클링복의 트위거, 1967, 「Paco Rabanne」



<그림 21> 원형 플라스틱을 이용한 유틸리티컬한 이미지의 드레스, 2004 S/S, 「www.firstview.com」

파코 라반이 색다른 소재의 디자인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한 재료는 단단한 플라스틱인 로도이드(Rhodoid)였다. 이것은 가볍고 저렴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색상이 가능하며 파코라반은 이를 여러 가지 기하학적 모양으로 잘라서 구멍을 뚫고 금속 원형 틀과 합쳐서 다양한 드레스<그림 17>와 액세서리를 제작하였다.

특히 Rhodoid earring<그림 18>은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젊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히 제작되었고 획기적인 주목을 받았다.³⁹⁾

그 후 그의 소재는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다양화되었고 종이<그림 19>, 가죽<그림 20>, 부직포를 이용한 작품들과 플라스틱 원반을 체인으로 이은 드레스와 삼각형이나 장방형의 플라스틱 또는 가죽 조각을 링으로 이은 의상 등이 발표되었다. 그 외에도 마름모꼴의 금속과 직사각형 모형의 알루미늄과 체인 형태도 사용되었다. <그림 21>은 2004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강렬한 원색의 원형 플라스틱을 비닐 안에 장식하여 유틸리티컬한 이미지를 강조한 의상이다.



<그림 22> 액체 플라스틱 'Giffo' 몰드로 만든 의상, 1968, 「Paco Rabanne」



<그림 23>사각 알루미늄으로 연결된 미니 드레스, 1968, 「Paco Rabanne」



<그림 24> 기하학적 메탈조각을 장식한 인조모피 코트, 1966, 「Paco Rabanne」



<그림 25> 여우 꼬리로 아프리카 꽃으로 장식한 코트, 1966, 「Paco Rabanne」



<그림 26> 하이테크 소재의 드레스, 2001 F/W, 「www.firstview.com」

파코 라반이 1968년에 발표한 또 하나의 획기적인 발명품은 액체 플라스틱인 '지포(Giffo)'를 이용한 디자인<그림 22>인데 이 재료는 특별히 디자인된 몰드에 스프레이를 가함으로써 창조되었다.⁴⁰⁾

파코 라반은 알루미늄도 그의 창작 재료로 삼았고 사각 알루미늄 조각으로 만든 미니 드레스<그림 23>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꽃과 단추를 달기도 하였고 알루미늄 저지를 이용하여 롱코트를 제작하였다.

그 외에도 그는 금속의 체인(chain)을 즐겨 사용하였고, 플라스틱 튜브, 광섬유 등의 다양한 소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는 등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계속하였다.

파코 라반은 모피, 깃털, 레이스, 자수, 가죽, 종이 등 의복 소재들을 기존의 디자이너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다. 예를 들어 <그림 24>, <그림 2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모피 위에 기하학적 금속 조각을 연결한다든가 여우꼬리가 아프리카 꽃으로 변화되어 독특한 분위기

를 나타내는 등 전통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디자인하였다. 그는 레이스를 잘라서 두 장의 플라스틱 사이에서 압축해링과 색이 있는 플라스틱으로 연결하고 금속조각으로 된 드레스에 리벳으로 연결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파코 라반이 주로 사용하는 소재들은 크게는 ‘반짝임(glitter)’, ‘투명함(transparency)’, ‘금속 효과(metallic effect)’로 구분된다.

즉 셀로판, 거울, 플라스틱 조각 등과 같이 빛을 반사하는 성질을 가진 소재를 다양한 표현양식으로 전개되어 움직임에 따라 반사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여 반짝이는 효과를 강조하였고, 매끈한 메탈릭 섬유나 플라스틱, 금속 외에도 크리스탈 비즈, 메탈릭 비즈, 셀로판 조각, 수정, 단추, 타조털과 플라스틱 조각 등의 오브제 장식을 덧붙여 더욱 환상적인 우주공간을 표현했다.

그 외에도 특수코팅을 한 라이크라와 같은 신(新)하이테크 소재<그림 26>를 이용하거나 은사 등의 합성사를 혼합한 소재를 주로 사용하였고, 그의 창작적인 작품을 위해 거울이나 유리는 건축 뿐만 아니라 의복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되어져 동작에 따라 반사하는 정도를 다르게 하며 빛의 요소가 강조되었다.

투명한 소재들은 소재나 표현방법에 의해 세가지 효과로 나타냈는데, 그 효과는 비닐, 아크릴판, 플라스틱, 셀로판 등을 이용하여 완전히 투시되는 효과와 신소재 합성사나 오간자, 오간디, 쉬폰 등의 시어(sheer)한 효과, 넷트(net) 조직이나 컷아웃(cut-out) 방법의 매쉬(mesh)한 효과로 나타났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우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표현하고자 스테인레스 스틸, 코팅강철, 알루미늄 판, 플라스틱 등을 조형적 구성에 사용하였는데 움직임 속에서 빛의 영향을 받아 키네틱 아트와도 상호 연결되는 효과를 일으켰다.

그의 혁신은 계속되었고 일상적 소재에 일상적이지 않은 금속성의 소재를 사용하여 신체의

일부로 장식하거나 금속 조각이나 플라스틱 등을 연결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우주 시대로 가는 새롭고 도발화된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IV. 파코 라반 작품의 미래주의적 미적 특성

1. 테크노와 기계미의 조화

파코 라반의 미래주의 패션 이미지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조형미는 기계의 속성인 규격화와 반복성을 표현하고 있다. 또한 그의 테크놀로지적 표현은 자연적인 이미지의 순수함과 기계적인 이미지에서 도출할 수 있는 ‘빛’의 느낌을 첨단소재로서 나타내어 진다. 그의 테크노 스타일의 메탈, 광택소재, 기계적 메시지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미래적 이미지를 상징한다.

파코 라반은 우주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플라스틱, 비닐, 실버 등의 금속성 원단이나 신소재, 고광택 소재 등을 사용하여 빛과 테크놀로지적 요소를 반영하였다. 주로 기하학적인 실루엣을 강조한 그의 작품들은 단순하고 볼륨감있는 소재 혹은 경량감있는 특수 코팅된 소재가 주로 쓰였으며 옵티컬 프린트와 반복되는 기하학적인 선들이 사용되었다. 색채에 있어서도 네온(Neon) 색상, 은색 그리고 고광택 등 첨단 테크놀로지 감각이 도입되었다.

또한 파코 라반의 작품들은 강한 조형적인 특성으로 인해 빠르게 회전하는 역동성까지 느끼게 한다. 그의 스프링 형태를 띠는 입체 장식물은 빛의 반사에 의해 움직일 때마다 자율적으로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기계적인 운동감을 표출한다.

그는 1994년 푸른 빛을 내는 플라스틱 전등과 메탈을 연결하여 빛을 소재로 한 전형적인 빛의 움직임을 이용한 의상<그림 27>들을 보여주었다. 전등이 수직으로 연속 배열된 형태는 아래로 하강하는 듯한 연속적인 움직임을 느끼게 하였

고 메인 체인과 전등이 느슨하게 얽혀져 있어서 움직일 때마다 서로 부딪히는 청각적인 효과가 가미되어 움직임의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이는 의상의 소재로 쓰인 장방형의 철판이 빛의 반사에 의해 광택을 낼 뿐만 아니라 움직임으로 인한 의상의 형태 변화가 기계적인 미학을 전달하며 의상 자체가 조형적 구조물과 같은 구성을 보이고 있어 운동감과 일체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 27> 플라스틱 전등과 메탈을 연결한 조형적인 드레스, 1994, 「Collections」

파코 라반의 테크놀로지 패션 이미지는 기술을 연상시키는 요소에 의한 이미지의 표현과 실제의 기술 발달을 활용한 기능성의 충족을 미적으로 표현 되었다.

그의 작품 속에 나타난 첨단과학 분야에서 비롯되어진 테크노 사이버의 영향은 첨단 소재와 미래지향적 이미지로 신선한 자극과 혁신적 양상을 구축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소외된 인간의 생활과 자연적인 요소와의 융합을 추구하고 있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암시적으로 전달하였다.⁴¹⁾

2. 혁신적 창작 기법

파코 라반은 그의 디자인에 혁신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끝없이 변화시키거나 작품 제작시 전

통적인 구성 방법을 탈피하고 기존 소재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면서 의복의 고정관념 및 전통의 해체를 통해 미를 창조하였다.⁴²⁾

파코 라반의 미래주의적 표현의 특징은 고정관념을 깨는 데 있다. 기존의 소재, 기법, 가공법 등을 바꾸고 일생동안 소재를 바꾸는 착상으로 일관해온 파코 라반은 모두가 디자인을 바꾸는 착상에 몰두해 있을 때에 유일하게 소재를 바꾼다는 착상에 눈을 뜬 디자이너이다.

파코 라반은 금속, 플라스틱, 종이는 의복의 소재가 될 수 없다는 고정관념에 도전하여 이러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최초로 현대 문명의 산물인 금속, 플라스틱, 유리, 비닐과 같은 광택 소재를 도입시켜 패션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는 당시에는 패션의 소재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소재인 료도이드 플라스틱을 패션에 사용하였는데, 이 소재는 무한할 정도로 다양한 색과 모양을 이용하여 다양한 디자인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액체 플라스틱인 지포를 이용하여 특별히 디자인된 몰드에 스프레이 함으로써 의상을 제작하였다. 이것은 전통적인 제조나 구매 습관과는 너무 동떨어진 것으로 오백 개의 분리된 공정 대신에 두 절차만을 사용해 옷감의 산업생산을 크게 단축시켰다.

그는 1968년에 발표된 핸드백 <그림 28>에 화장실의 물 내리는 쇠줄을 달았다. 이것은 마셀 두상(Marcel Duchamp)의 작품 'ready mades'을 참고로 한 것이고 코코 샤넬의 유명한 체인으로 된 핸드백을 조롱하는 것이기도 한다.⁴³⁾ 또한 그는 기존의 의복 소재인 털, 가죽, 종이, 레이스 등을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전혀 색다른 분위기를 창조하였다.

1967년에 발표된 알루미늄 디스크를 와이어로 연결한 의상<그림 29>과 일정한 형태를 가진 플라스틱 조각 단위를 일정하게 금속 링에 연결하여 만든 의상<그림 30>에서 보여지는 구성 기법은 파코 라반이 줄곧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림 28> 체인 핸드백,
1968, 「Paco Rabanne」



<그림 29> 알루미늄 디스
크와 메탈 고리로 이어진
의상, 1967, 「Fashion」



<그림 30> 플라스틱 조각과 메
탈 고리로 연결한 드레스, 2001
F/W, 「www.firstview.com」

이처럼 그는 플라스틱이나 다른 단단한 재료를 금속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함으로써 의상은 원래 이어진 옷감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환상을 깨뜨렸다.

한편 세계 최초로 옷감을 틀에 넣고 순간적으로 처리하여 솔기가 없는 양복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종이와 섬유에 대체품 취급을 받는 것을 거부했으며 옷감을 서로 꿰매는 대신에 여러 색의 접착테이프를 사용하였고 이것은 디자인의 장식 요소가 되었다.

이처럼 의복 구성 외에도 음악, 미술, 영화 등의 다른 예술 영역과의 교류를 통해 이제까지의 패션 작품의 개념과는 다른 성격과 미학을 가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그의 이단적인 추진력의 근원에는 사회, 문화의 주어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일탈과 합치의 정신 때문이었다.⁴⁴⁾

3. 관능성

인체의 표현 방법에서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독특한 방법을 추구해온 파코 라반은 알루미

늄, 플라스틱 등 단단한 재료를 금속 링이나 리벳으로 연결하여 신체를 여성 스타일의 개념에 의해 드러나는 제한된 부분이 아닌 몸 전체가 연결된 고리 사이의 틈으로 보이게 했다.

1968년에는 드레스와 망토의 제작시 카드를 격자 모양으로 하거나 그 안에 마른 꽃을 고정된 투명한 플라스틱 사각형을 이용하여 타조 깃털을 붙여 부분적으로 감추어진 육체의 관능성을 강조하였다. 1994년에 나오미 김벨을 위해 제작한 파코 라반의 작품 <그림 31>은 대담하고 자극적인 란제리 룩의 스타일로서 메탈로 처리한 브라지어가 마치 기계부품의 재료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조형미를 완성시킨 스타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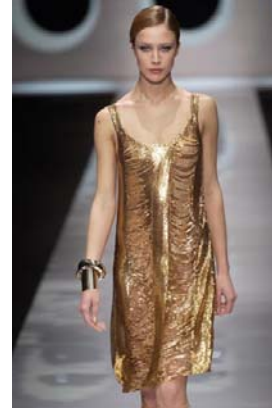
이 메탈 브라지어는 기계가 주는 차가운 느낌과 인간의 육체를 조화시켜 만든 것으로 기능적인 단순미 뿐만 아니라 선정적인 도발성까지 느끼게 한다.

파코 라반은 옷으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그의 디자인은 가림을 통해 오히려 눈을 자극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그림 32>는 2004년 F/W에 발표된 금속사로 짜여진 심플한 드레스이다. 신체를 따라 유연하



<그림 31> 나오미 김벨을 위해 만든 비키니, 1991, 「Paco Rabanne」



<그림 32> 슬래쉬 효과의 광택소재 드레스, 2004 F/W, 「www.firstview.com」

게 흘러내리는 울동감있는 슬래쉬 효과가 금색의 강렬한 광택감에 의해 더욱 관능적인 느낌을 주는 작품이다.

<그림 33>은 2003년 S/S에 발표된 작품으로 대담한 장신구와 체인으로 이어 상체를 불규칙적으로 덮어 장식한 탑(top) 디자인이다.



<그림 33> 대담한 장신구와 체인으로 이어진 메탈 소재의 의상, 2003 S/S, 「www.firstview.com」

<그림 34>는 미래주의 패션의 특징인 투명하고 빛나는 소재의 재질감을 입체적으로 살려 광택감과 울동감에 의한 마치 누드를 연상케하는 새로운 여성미를 보여준다.



<그림 34> 투명하고 빛나는 재질에 의한 노출의상, 2002 F/W, 「www.firstview.com」

파코 라반은 '의상은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폐쇄적으로 봉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그의 작품 활동의 기틀로 삼았고 그만의 독자적인 시각에서 여성미를 해석하였고 이를 표현하는데 있어 다양한 소재와 기법 등의 새로운 시도로서 40년 동안 신체의 곡선에 들어맞는 새롭고 관능적인 형태의 다양한 드레스를 개발하였다.⁴⁵⁾

이러한 인체의 다양한 표현방법은 도덕과 미학의 객관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만의 주관적이고 독특한 창조의 세계를 추구해 왔던 파코 라반의 독창적인 미적 특성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본 연구는 20세기 미래주의의 발생과 함께 중요한 패션요소로 자리잡은 미래주의 패션을 정립해보고 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로 활약해온 파코 라반의 작품을 분석하여 미래주의적 디자인의 미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미래주의는 기존의 고전적이고 정적인 주체와 표현 방법을 거부하고 미래세계에 초점을 맞춘 급진적인 운동으로 1910년대 이탈리아에서 등장한 미술사조인 미래파를 의미한다. 미래주의의 표현 목적은 기계의 다이내미즘과 속도감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하학적 형태와 기계를 상징하는 색채, 질감, 운동으로 표현된 기계 미학을 표현한다.

둘째, 20세기 초의 미래주의 발생과 함께 새롭게 탐구되기 시작한 미래주의 패션은 과학적 이미지의 기하학적 형태와 움직이는 예술 의상을 중심으로 혁신적 창조정신을 보여준 것으로 현대 복식이 나아갈 다양한 미학적 경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1960년대의 스페이스 패션, 옴 아트 패션과 키네틱 패션의 도입과 함께 멀티 미디어의 발전과 첨단기술을 받아들인 미래지향적인 요소의 1990년대의 테크노 사이버풍의 미래주의 스타일로 발전, 확대되었다.

스타일로 발전, 확대되었다.

미래주의 패션은 비밀상적인 소재의 개발과 시스루(see-through) 소재 등을 통해 우주를 표현하고 하이테크의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선보였다. 또한 비대칭, 추상적인 이미지의 역동성과 함께 인광을 발하는 광택 소재, 역동적인 색채, 기하학적 패턴이 이용되었고 모티브의 연속적인 반복이 나타내는 속도감과 율동감이 있는 다이내믹한 직물 문양이 사용되었다.

셋째, 미래주의 패션을 대표하는 파코라반의 작품 세계는 전통에 상관하지 않고 원래의 사용 목적에서 변형된 새로운 소재의 사용과 기존 소재의 혁신적인 사용 외에도 비전통적인 의복 구성, 인체 표현 방법의 다양성 추구, 타 영역과의 상호 연관성을 통한 새로운 미래주의적 스타일로 요약되었다.

그는 삼각, 사각, 다각형, 원형 등의 기하학적 형태를 디자인의 기본 단위로 삼고 기하학적인 조형, 선, 점의 배치를 이용해 옴 아트, 키네틱 아트적인 패턴과 운동감을 주었다. 이는 빛이 반사되는 각도 변화와 몸의 움직임에 따라 다이내믹하고 율동적인 느낌을 주어 강한 율동감과 집중력을 불러 일으켰다.

또한 금속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과 같은 물리적, 심리적 특성을 달리하는 이질적인 소재를 꼴라주 기법을 통해 의상 위에 입체적으로 결합시켜 미래 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파코 라반은 미래주의 패션에서 기계미학으로 꾸준히 추구되어온 '움직임'의 의상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는데 투명한 재료나 빛의 변화를 나타내는 금속 재료와 형광을 이용한 재료로서 운동감과 빛의 반사를 이용한 역동성을 속도감있고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넷째, 파코 라반의 작품에서 나타난 색상은 주로 은색, 금색의 메탈릭 색채와 흰색을 중심으로 하는 무채색 위주의 색상 외에도 미래주의적이고 인공적인 형광 색상, 네온 색을 띠는 원색을 흰색과 검은색에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다섯째, 파코 라반은 직물 이외의 소재에 심취하여 플라스틱이나 금속 소재, 실험성이 강한 요

소나 테크놀로지가 가미된 메탈릭 소재 등을 이용한 의상 외에도 광택 소재와 메탈릭 소재, 스트레치 소재, 알루미늄, 금속의 체인을 즐겨 사용하였고 광섬유, 플라스틱 튜브 등의 다양한 소재를 여러 가지로 조합하는 등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계속하였다.

그 외에도 모피, 깃털, 레이스, 자수, 가죽, 종이, 부직포 등 의복 소재들을 기존의 디자이너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작품에서 주로 사용된 소재감은 반짝임(glitter), '투명함(transparency)', '금속 효과(metallic effect)'로 구분되었다.

여섯째, 파코 라반 작품의 미래주의적 미적 특성은 테크노와 기계미의 조화, 혁신적인 창작 기법, 관능성을 들 수 있다. 파코 라반의 미래주의적 패션 이미지에 나타나는 기하학적 조형은 기계의 속성인 규격화와 반복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소재, 색상에서 나타난 고풍택 첨단 테크놀로지로서 '빛'의 느낌을 강조하며 기계적 메시지와 테크노의 강한 조형적 특성을 보였다

또한 전통적인 소재와 구성 방법을 탈피하고 기존 소재의 사용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고정 관념을 깨는 혁신적인 창작 의지를 선보였다.

기계부품의 재료를 연속적으로 이어서 조형미를 완성한 그의 작품은 연결 고리 사이로 신체를 노출시키는 등 기계미가 주는 차가운 느낌과 신체를 조화시킨 도발적인 관능미를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파코 라반의 패션 디자인의 특징은 심플한 형태, 메탈릭과 모노톤의 색상, 다양한 테크노 소재의 사용, 인공미, 비일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첨단 과학에 의한 기능성과 초월적 세계를 표현한 미래주의 패션에 근거한 것에 있다.

향후 미래주의 패션은 획일적인 소재와 구성법, 디자인 기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예술적인 표현이 더욱 중요해지고 초현실적인 형태와 더불어 혁신적이고 테크놀로지한 소재와 기술력에 의해 날로 발전해나가기라 본다. 이에 대한 테크놀로지와 인간 중심의 사고와 접목시키는 미래의 패션에 관한 많은 후속 연구가 시급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1) 서성록 (1997), "현대 미술의 쟁점", 재원, p. 33.
- 2) 최정자(1998), "파코라반 의상에 나타난 초현실주의적 디자인에 관한 연구", 안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최영옥(1999), "파코 라반 복식의 조형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 복식문화연구, 제7권 제5호.
- 4) 이봉덕, 양숙희(2001), "파코 라반 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1호.
- 5) 김정희(1992), "미래주의적 예술양식의 관점에서 본 현대패션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6) 이상진(1997), "현대복식에 나타난 미래주의적 경향 연구", 숙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영재(2002), "현대 패션디자인의 금속소재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6 No. 5, pp. 582-593.
- 8) 김창규 역, Rosmary Lambert 저(1993), "20세기의 미술", 도서출판 예경, pp. 26~31.
- 9) 이상진(1997), 앞의 글, p. 11.
- 10) 이상진(1997), 앞의 글, p. 21.
- 11) 임영방(1990), "현대 미술의 이해", p. 91
- 12) Umbro Apollonio (1973), "Futurist Manifestos", Thames and Hudson, p. 132.
- 13) 박윤정, 양숙희(1998), '복식에 표현된 미래주의 양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4호, pp. 91-95.
- 14) 박윤정, 양숙희(1998), 앞의 글, pp. 96-97.
- 15) 이금희(1996), "Futurist 복식 선언문과 그 복식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55.
- 16) 이정후(1990), "현대 여성 패션에서 나타난 안티패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8.
- 17) 변임진(1997), "미래주의 예술양식의 관점에서 본 현대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6.
- 18) 옴 아트는 광학과 시각의 심리적, 물리적 과정의 관련으로 움직이는 색채와 에너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각을 자극하는 예술이며 키네틱 아트는 시각적 효과를 화폭에 표현하는 형과 색의 제한없이 인공 광선의 움직임이나 색채, 음악을 포함하는 종합 예술로 옴 아트에서의 움직임 묘사보다 움직임 자체에 목적이 있었다.
 - 19) kinetic art는 움직임을 주요소로 하거나 시각적으로 움직임을 주는 조형으로 그 요소가 테크놀로지의 바탕에서 생성되어 60년대 예술 중 본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지향한 양식이었다.
 - 20) George Warren Rickey, 윤난지 역(1991), "키네틱 아트", 서울: 열화당, p. 78.
 - 21) 베비스 힐리어저, 조규화역(1983), "20세기 양식", 수확사, p. 221.
 - 22) 박윤정, 양숙희(1998), "복식에 표현된 미래주의 양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6권 제4호, pp. 84-103.
 - 23) 김예형(2001), "복식 디자인의 미래적 이미지에 관한 연구",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3.
 - 24) 정흥숙(1999), "서양복식문화사", 교문사, p. 410.
 - 25) 조경희(2003), "스트레치 소재에 의한 바디 컨셔스 패션의 미", 조경희, pp. 178-187.
 - 26) "파코 라반", (1995, 4), *Fashion Today*, p. 65.
 - 27) Kamitsis, L.(1999), "*Paco Rabanne*", Thames & Hudson, p. 5.
 - 28) Kamitsis, L.(1999), *ibid*, p. 15.
 - 29) 김정애(1995), "20세기 후반에 나타난 사이버-테크노 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3-14.
 - 30) 강희경(1994), "현대의상에 적용된 기하학적 입체 형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p. 191.
 - 31) 패션사전 편찬위원회(1999), "*패션 큰 사전*", 교문사, p. 584.
 - 32) 하관식(1983), "꼴라주 기법이 현대 회화의 발전에 미친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pp. 22-23.
 - 33) 이정후(1990), 앞의 글, p. 28.
 - 34) 임영자, 이상례(1993), "현대 의상에 나타난 움직임의 표현성", *복식* 20호, p. 123.
 - 35) Joel Lobenthal(1990), "*Radical Rags : Fashion of the Sixties*", New York : Abbeville Press Inc., p. 62.
 - 36) 김정애, 앞의 글, 1995, pp. 32-35.
 - 37) 김예형(2001), 앞의 글, pp. 14-36.
 - 38) 유승희, 금기숙(1999), "현대 패션에 나타난 금속에 관한 연구", *복식* 45호, 7, p. 173.
 - 39) Kamitsis, L.(1999), *ibid*, p. 18.
 - 40) Kamitsis, L.(1999), *ibid*, p. 56.
 - 41) 김정애(1995), 앞의 글, pp. 52-55.
 - 42) 이봉덕, 양숙희(2001), 앞의 글, p. 150.
 - 43) Kamitsis, L.(1999), *ibid*, p. 44.
 - 44) *Mode et Mode*, 94~95 F/W, p. 197.
 - 45) 이봉덕, 양숙희(2001), 앞의 글, p. 148.

(2005년 4월 15일 접수, 2005년 6월 3일 채택)